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림수산식품부 전남지역본부장은 24일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박백석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지역본부장은 24일 오후 1시 중앙본부에서 열리는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올해부터 관할지역에서 7년 미만 도소매 등 서비스업체에 정책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본부의 관할지역은 광주시, 장성, 화산, 담양, 나주, 함평, 영광 등 7개 지역이다.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매업, 도매업, 운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신청대상이 된다. 관련 영위업종으로는 마트, 골프연습장, 안경원, 미용실 등이 있다.

신청자격 여건은 상시종업원(지난해 4대보험 가입 평균인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운전자금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원가능 금액은 3,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다.

기타 사항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062-600-3000)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30일 미니 채용박람회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김신희 관장)는 고용평등 강조주간(5월25~31일)을 맞아 광주지역의 여성전환직종기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난 해소, 지역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0일 센터 강당에서 '2017년 좋은 일 생기는 날'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일대일 현장면접을 통한 직접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구직여성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은일(job) 생기는 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미니채용박람회는 1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간호, 보육, 법무, 사무, 조리 등의 분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서 작성 및 면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직여성들은 행사 전에 광주여성세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 참여기업 및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당일 신분증, 이력서를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062-511-0001)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동부대우전자-벨라루스

협력 강화 MOU체결

동부대우전자는 22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벨라루스 최대 가전업체 호리존트(Horizont)의 유리 프레드코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와 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리존트는 벨라루스 최대 가전업체로 25개 계열사에 7,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동부대우전자의 TV를 현지 생산해왔는데 이번 MOU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보다 약 3배 늘어난 약 15만대의 TV를 생산한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호리존트와의 협력을 통해 벨라루스를 비롯한 러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새정부 '정권교체' 바람타고

호남 부동산시장 기대감에 '들썩'

3.3㎡당 매매가 광주 106.25%·전남 73.66% 상승 대구·경북 하락세...청약경쟁률 광주·전남 높아 호반 '남악 베르디움'·대광 '대광로제비앙' 분양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대구·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향세인 반면 광주·전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교체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광주·전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방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국토개발로 지방 부동산시장 흐름은 경부축이 주도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살펴보면 통계자료가 집계된 2000년 이후(2000년~2016년) 대구·경북 지역의 3.3㎡당 매매가는 ▲대구 116.03%(296만→875만 원) ▲경북 92.84%(221만→545만 원) 순으로 올랐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 106.25%(233만→607만 원) ▲전남 73.66%(213만→445만 원) 순으로 상승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상승세를 크게 밀돌

았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양상이 바뀔 조짐이다. 꾸준한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오던 대구·경북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주는 지난 2015년 11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7개월간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매매가가 2.9%(899만→873만 원)하락했다. 경북도 2015년 12월 이후 2017년 4월 까지 하락세가 이어져 1.99%(556만→544만 원)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2015년 11월~2017년 4월) ▲광주 3.2%(593만→612만 원) ▲전남 5.1%(432만→454만 원)은 꾸준한 상승하

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온도차는 청약시장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1년간(2016년 4월~2017년 4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급된 일반공급 물량은 2만1,319가구이며 22만2,569명이 청약에 접수하며 10.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은 1만5,927가구의 일반공급 물량이 21만7,496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13.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본격적인 분양성수기인 5월과 6월에도 많은 신규분양 단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나올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전력은 지난 15~1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코트라(KOTRA)와 중소협력기업의 아프리카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

한전, 아프리카서 중기 판로확대 지원

현지바이어 2,228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한국전력은 지난 15~1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코트라(KOTRA)와 중소협력기업의 아프리카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촉진회에 참가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1대 1 상담과 전력 신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했고 총 2,228만 달러(약 250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한전은 수출촉진회에 참가한 10개 중소기업의 부스 임차비, 통역비, 차량비 등 행사 비용을 100% 지원했다.

또 세미나를 열어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배전

자동화시스템(DAS) 등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협력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다.

한전은 앞으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알제리, 모로코에서 수출촉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란 등 4개국의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국민연금 실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 24%

적정 소득대체율 70% 안팎보다 턱없이 낮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조차 감당하기 벅하다는 말이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지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더니 2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자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오는 6월 16일까지 광주콘텐츠코리아랩 3기 콘텐츠 창작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유치, 2년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VR,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MCN, 음악,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총 38개 팀이 창작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4개 팀이 신규 창업을 통해 사업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3기 콘텐츠 창작자는 영상콘텐츠, 가상(증강)현실콘텐츠, 메이커스 등 총 3개 분야로 총 30개 팀을 선정, 제작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2016년도에 추진했던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공모전(G.Idea)의 선정작이거나 예비창업자일 경우 선정 평가시 우대한다.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e나라도움(gvs.gosims.go.kr)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콘텐츠코리아랩(062-350-93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광주은행 어르신 전용 점포 확대

노인배려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혜택 광주 남·북구 이어 올해 등기에 설치

광주은행이 어르신을 위한 전용 점포를 확대한다. 금융권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점포 수를 줄이는 가운데 노년층이 대를 맞아 디지털 금융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노인 배려차원에서다.

광주은행은 2015년 남구 빛고을건강타운점과 지난해 북구 오지동점을 어르신 전용 점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등구에 어르신 전용 점포를 설치한다.

어르신 전용 점포에는 직원 3명 이상이 근무한다.

어르신 전용 점포를 이용하는 노인기업의 부스 임차비, 통역비, 차량비 등 행사 비용을 100% 지원했다.

또 세미나를 열어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배전 자동화시스템(DAS) 등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협력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다.

한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영암삼호일반산업단지에서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호반건설은 6월 무안군 삼향읍에 들어서는 '남악 오봉 호반베르디움 1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665가구, 전용면적 60~85㎡ 규모다. 이단지 주변에는 남악아울렛, 남악북쪽주민센터, 롯데아울렛 남악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또 오봉초·중학교, 남악중·고등학교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잘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는 오희산과 부주산이 있어 일부세대에서는 녹지 조망권도 기대된다.

현대광권영은 5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짓는 '동광 대광로제비앙'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06세대 규모다. 단지는 빛고을대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전역을 누릴 수 있는 쾌속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천 유스퀘어 등 풍부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또 한울초등학교, 서강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돼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업계전문가는 "경부축 성장가능성의 한계와 국토 균형발전의 기조로 경북권과 호남권의 부동산시장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며 "여기에 호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권의 출범으로 광주·전남 일대 개발 기대감까지 작용하며 광주·전남 일대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온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은, 희망나눔 걷기대회 후원

지역 취약계층 지원 나눔문화 확산 기여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제2회 희망나눔 걷기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희망나눔 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행 정순자 부행장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개최하는 제2회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걷기대회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무시민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광주은행 정순자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행 정순자 부행장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조달청, 아스콘 불법납품 21개 업체 적발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하거나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페콘크리트나 페이스콘에서 추출된 재료를 골재로 신생골재와 혼합해 생산한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

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의심되는 24개 조찰의 48개 회 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